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1 구독료: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9월 3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1 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합동징수 행정지침 무효
관람료 자율화 공정시비

관리공단 이사장 이상한 행보

교계 '합동징수외 대안없다' · 강력대응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남이사장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합동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사찰들을 차례로 방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합동징수 행정지침 무효 △자율화된 관람료 공공성 없다 등의 '문제성 발언'을 하며 문화재관람료 인상조치 철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김이사장은 8월24일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를 방문 "국립공원입장료의 폐지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흥사는 문화재관람료 인상조치를 한시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김이사장은 이어 26일 갑사 팀과 동행해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있는 갑사를 방문 갑사(주지 정영)와 신원사(주지 운담) 관계자를 만나 "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철회하고 종전처럼 합동징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이사장은 법주사(주지 혜광)를 방문 "문화재 관람료가 자율화 되었으니 기존의 내무부와 문체부, 종단이 행정지침으로 약속했던 합동징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재관람료의 조정 권한이 종단으로 이양되고 인상 논의에 공단의 참석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람료의 공공성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이사장의 발언은 공단측의 개별적 판단일뿐 상급기관인 내무부등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며 "이 문제의 소관부처는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이지 공단측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공단의 한 관계자도 "공단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줄 안다"고 말했다.

교계는 김이사장의 '법주사 발언' 역시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종단은 90년 이전부터 합동징수를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정부측(내무부 문체부)이 법제화의 곤란을 이유로 '행정지침으로 수용하자'고 제시 해 왔었다. 김이사장의 '행정지침 무효 주장'은 그간 유지되어 온 정부측의 행정지침을 파기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는 것이 교계의 반박.

김이사장의 이같은 행보와 발언은 종단과의 공식 접촉을 회피하고 개별사찰 접촉으로 '외곽 때리기'를 함으로 종단의 강경대응 방침에 임해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9월초 관광사찰 주지회의를 소집 분리징수와 김이사장의 발언등의 문제를 강도높게 다룰 방침이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도 공단의 분리징수 철회와 총무원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며 분리징수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

북돕기 1백만서명 보고대회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백만인 서명운동 보고대회가 8월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정진경목사, 김종필 자민련 총재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부여 무량사는 신라말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보령 성주사(지)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신라때 이름난 고찰이지만 여기에는 백제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은 백제탑인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을 본따 만든 백제계 석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고려때 백제의 옛 땅에 세워져 백제인들의 문화와 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로 백제 멸망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나 울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현재 무량사에는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동양최대의 아미타삼존불을 비롯 석등, 당간지주, 감시습 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를 비롯 석탑 4기, 석불, 석불대좌 등이 번성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춤추는 가을의 입구에서 우아하고 격조높은 백제미를 창조했던 백제인의 불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9월 테마여행 - 무량사 · 성주사지

■ 참가 안내

◇출 발: 9월 28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각자 지참)
◇안 내: 임병고(백제사적연구회장)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이 광 수

광복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제가 시퍼런 눈초리로 공출(公出)이라는 명목아래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모두 빼앗아 가던 때에도 그 감시를 피해 꽁가리 징만은 대문안 땅속 깊이 묻어 두었다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명을 돋구어 어려움을 달래며 살았고 창씨개명등 문화적 억압을 해도 우리의 정신문화 만큼은 지키며 서로 나누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딴가. 2m가 넘는 높은 담벼락을 치고 그위에 쇠창살까지 설치하고 육중한 철제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웃집에 불이라도 나면 이웃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 불이 자기집으로 옮겨 붙지나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닫혀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은 옆 사람에게 핏발선 원수의 눈초리를 보내게 하고, 소젖(우유)을 먹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안기 보다는 먼저 들이받는 소와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은가. 풍요가 가득한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듯 황폐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 한구석이 허허하고 메어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눔의 정신이 그립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 하나의 광고문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사랑하고 불의에 맞서며 희비애락을 함께 나눌줄 아는 우리의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하루속히 되찾고 정착시켜야 한다.

(민족음악원 원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신륵사 분리징수 잠정보류
여주군, 종단 · 사찰 '합동' 강경 입장따라

여주군청(군수 박용국)은 신륵사(주지 세영)의 문화재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분리징수 방침을 잠정 보류했다. 여주군청은 9월1일부터 문화재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신륵사에 알려왔으나 사찰과 종단의 강한 반발에 따라 8월 28일 잠정보류를 결정했다.

신륵사는 군청이 분리징수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산문폐쇄와 공원지역내 체육시설지구에 편입된 신륵사 소속 토지에 대한 반환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체육시설내 사찰토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군청에 전달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 29일 산문폐쇄
공단측 분리매표 강행에 '대응조치'

속리산 법주사(주지 혜광)가 8월29일 낮12시40분을 기해 산문을 폐쇄했다.

법주사의 산문폐쇄조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날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를 강행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산문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법주사는 인상된 요금의 합동징수가 합의되는 시점까지 산문을 폐쇄하고 앞으로 종단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주사는 지난 16일자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했다. 이와관련 관리공단은 분리매표를 강요해 왔으나 법주사는 합동징수를 고수해 왔다.

조계종-대각회 '법인정관' 논의
종단방침 수용의사

조계종 소속 법인들에대한 종단의 '정관개정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21일 대각회와 실무협의를 개최해 종헌 제 9조3항(본종 소속 승려가…법인을 설립했을때에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여야 한다…)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논의 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측에서 총무부장 혜창스님 기획실장 지홍스님 총무국장 지현스님이 대각회측에서는 보광스님(정토사주지) 대원스님(보국사주지) 효경스님(법안정사주지)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대각회는 종헌 제9조3항과 관련된 종단의 지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종단과 대각회는 대각회의 정관개정이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인만큼 개정에 앞서 대각회는 종단의 방침을 소용한 '대각회 내부규정'을 제정토록하고 그에 상응해 종단에서도 그간 규제했던 행자교육과 장학금수여 혜택등을 해제키로 했다.

연예포교 '무대가 좁다' 9면
스님들 시민 · 환경운동 '앞장' 19면
사찰 도난 · 방화 예방 시설 3면
가을독서 수상집과 함께 14면

국내 최초
차안에서 보는 내 차의 주행정보-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탄생

전국 어디서나 자기차량의 현재위치 표시, 진행방향 확인은 물론 관공서, 호텔, 병원, 골게이트 등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등 상세한 정보까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도, 막막한 초행길도 - 이제,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현대 HNS-2000과 함께 달려보십시오.

현대 HNS-2000 구성품

현대HNS-2000주요기능
· 현재위치 표시기능 · 현재지역 정보 및 서비스 기능
· 지도 축소/확대 기능 · 경유지 및 코스설정기능

Car Navigation System이란?
GPS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 차량에 설치된 컬러모니터 화면의 지도에 자기차량의 위치, 방향표시 및 각종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항법시스템입니다.

전국 대리점
전국 A/S 지정점

현대전자
YUNDAI